

‘거센 여풍’ 30대 여성 취업자 1년새 11만명 꺾춤

경제활동참가·고용률 사상 최고
혼인·출산 연령 상승도 영향
제조·건설업 부진 남성 8만명 ↓

30대 여성 취업자가 1년 전보다 11만명 늘고 남성 취업자는 8만명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 취업자 비중이 높은 제조업·건설업 고용이 부진했던 반면 여성 취업자 비중이 높은 보건복지업 고용은 성장세를 지속하면서다.

만혼·비혼, 저출산 등으로 30대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률이 각각 사상 최고를 기록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 7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과 경제활동인구 조사 마이크로데이터에 따르면 지난달 30대 취업자는 1년 전보다 2만4,000명 증가했다. 30대 여성 취업자(217만6,000명)가 10만 8,000명 늘고 30대 남성 취업자(312만8,000명)는 8만4,000명 감소한 결과다. 30대 여성 취업자는 2021년 12월부터 16개월 연속 증가세, 30대 남성 취업자는 작년 2월부터 14개월 연속 감소세다.

30대 인구 자체는 남녀 모두 줄고 있지만, 여성은 고용률이 큰 폭으로 올라 인구 감소분을 만회했다. 임경은 통계청 고용통계과장은 “요양보호사·간호사 등 여성 비중이 큰 보건복지업 취업자가 늘고 남성 비중이 큰 건설업과 제조업은 취업자가 줄어든 것이 (지난달 성별 취업자 증감 차이에) 영향을 미쳤다”며 “혼인 및 출산 연령이 높아지면서 30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도 예년보다 훨씬 높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보건복지업은 고령화 등으로 돌봄 수요가 늘면서 취업자가 늘어나는 추세다.

지난달 30대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인구 대비 취업자와 실업자의 비율)은 69.2%, 고용률은 67.1%로 각각 1년 전보다 4.2%포인트 올랐다.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률 모두 구직기간 4주 기준으로 통계를 개편한 1999년 6월 이래 역대 최고치다. 결혼·출산 자체가 줄어드는 데다 아이가 있더라도 일하는 여성이 늘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코로나19 확산기 어린이집 휴원 등으로 불가피하게 맞벌이를 중단해야 했던 여성들이 일터에 복귀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된 측면도 있다.

지난달 30대 여성 취업자는 작년 동월 대비 주 36시간 이상 상용직 근로자(16만2,000명)를 중심으로 늘었다. 종사상 지위별로 증감을 보면 상용근로자(15만9,000명)와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9,000명), 무급 가족 종사자(5,000명), 일용근로자(4,000명)가 늘었고, 임시근로자(-5만 5,000명)와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1만5,000명)는 줄었다. 취업 시간별로는 36시간 이상이 15만6,000명 증가했으며 36시간 미만 취업자는 4만9,000명 감소했다. /연립수 기자

광주국세청, 찾아가는 소통행사 호응

공공·교육기관·종교 단체 대상

광주지방국세청은 코로나19 상황으로 막혔던 현장소통 행사를 적극 활용하며 맞춤형 세무정보를 제공해 호응을 얻고 있다고 7일 밝혔다. 광주국세청은 맞춤형 세무정보를 필요로 하는 납세자에 초점을 맞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납세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장성군 소재 백양사를 시작으로 최근까지 종교단체 6곳, 공공기관 6곳, 교육기관 2곳 등 총 14개 단체를 대상으로 적극적인 소통행사를 가졌다. 주요 경제단체와 산업단지 사업자 위주로 세정지원 방안 등을 모색했던 기존 간담회 방식에

서 벗어나 소통대상을 확대했다. 해당 기관에 직접 방문해 단체 등의 궁금증과 주요 관심분야부터 애로·건의사항까지 정책과 실무를 아우르는 폭넓은 주제들을 논의하고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백양사를 포함한 불교계와 원불교 등 종교단체에서는 자체 제작한 ‘종교단체가 알아두면 유용한 세무정보’ 자료를 제공해 기본적인 세무지식에 대한 이해를 도왔다. 또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농어촌공사 등 공공기관과 전남대, 원광대 등 교육기관을 방문해 궁금증과 애로사항을 현장에서 최대한 해소했다. 광주국세청은 현장소통 과정에서 수렴한 의견들을 세정에 적극 반영하고 법령개정 등 중장

기적 과제에 대해서는 진행사항을 납세자에게 주기적으로 통보하고 있다. 이번 행사를 계기로 각 단체에서는 국세청과의 소통채널이 마련된 것에 대해 감사를 표하고, 정기적인 세무서비스 제공을 제안하는 등 큰 호응을 얻었다. 한편, 광주국세청은 경제주체와 소통을 위해 3월 광주 하남산단 간담회를 시작으로 4월부터는 순천·광주·전주·여수상공회의소 간담회를 갖기도 했다. 운영석 광주국세청장은 “앞으로도 진정성 있는 소통을 통해 납세자의 궁금증과 어려움을 해소하고 세정에 적극 반영해 납세자가 체감할 수 있는 소통행사를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연수 기자



복합쇼핑몰 광주상인대책위원회는 최근 광주시청 행복회의실에서 제1회 광주상인공동회를 열고, 대기업 복합쇼핑몰 입점·신세계백화점 확장 움직임에 공동대응하기로 했다. /복합쇼핑몰 광주상인대책위원회 제공

“대기업 유통시설 상권 잠식 적극 대응”

제1회 광주소상공인공동회 개최

복합쇼핑몰 건립, 신세계백화점 확장 등으로 인한 상권 잠식을 우려하는 지역 소상공인들이 공동 대응에 나섰다. 복합쇼핑몰 광주상인대책위원회는 지난 4일 광주시청 행복회의실에서 제1회 광주상인공동회를 열고 유통대기업들의 대규모 점포 입점 추진에 대한 지역 상인들의 대응 방향을 모색했다. 이날 공동회는 토론 형태로 진행됐으며, 기조발언자로 임창욱 전 호남대 교수, 기우식 참여자치21 사무처장, 김동규 금호월드 상인회장 등 지역 소상공인들은 자유 발언을 이어갔다. 임창욱 전 교수는 “대형 쇼핑몰이 출점할 경우 지역 상권에 큰 영향을 미친다”며 “시에 소상공인을 위한 컨트론타워와 전문성이 필요하다. 광주만의 차별화된 골목상권 정책 등 구체적인 대책도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기우식 참여자치21 사무처장은 “대규모 점포 등을 개설할 때 객관적 평가에 활용하려는 시조례 취지에 따라 시장이 상권영향평가를 할 수 있다”며 “평가 결과에 따라선 입점 계획을 바꿀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상목 세정아웃렛 상인회장은 “시장이 의지만 있다면 광주상인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 소상공인들의 부채 문제와 최저임금 보장 등 실질적 도움을 달라”고 호소했다. 김동규 금호월드 총상인회장은 신세계백화점 확장안에 대해 “시민 입장에서 봐도 군분로 60번길은 신세계백화점에 편입되면 안 된다”며 “지하도로 개설안 역시 신세계백화점 확장 부지가 아닌 농성사거리까지 연장해야 의미가 있다”고 지적했다. 상인대책위는 대형 복합쇼핑몰 신규 건립·입점과 백화점 확장 문제에 대해 공동대응 필요성에 공감, 향후 구체적인 행동 계획 수립에 합의하고, 광주상인공동회를 꾸준히 열어 수시로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홍승현 기자



농협전남본부와 영암축협이 최근 (사)나눔축산운동본부 전남도지부와 함께 가정의 달 5월 맞이 어르신들을 위한 '사랑의 정 나눔' 행사를 진행했다. /농협전남본부 제공

전남농협, 지역 어르신에 사랑의 정 나눔 행사

400만원 상당 축산물 제공
농협전남본부와 영암축협은 최근 (사)나눔축산운동본부 전남도지부와 함께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해 어르신들을 위한 '사랑의 정 나눔' 행사를 진행했다고 7일 밝혔다.

이날 행사는 8일 어버이날을 기념해 지역 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해 온 어르신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영암군 군서면 노인복지회관과 신북면 주암마을, 도포면 성산마을에 약 400만 원 상당의 축산물(한우고기, 돼지고기 등)과 물품을

나눴다. 박종탁 본부장은 “어버이날을 맞아 지역 어르신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달하게 돼 보람되고 기쁘다”며 “앞으로도 전남농협은 지속적인 나눔활동을 실천하기 위해 봉사과 후원 활동을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우성진 기자

소진공, 예비스타 소공인 10개사 선발

판로 지원·기업진단·컨설팅
인큐베이팅 등 단계별 지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최근 공개오디션을 통해 예비스타 소공인 10개사를 선발했다. 선정된 소공인 업체들은 앞으로 판로 아카데미를 통해 성장을 위한 집중지원을 받게 된다. 판로아카데미는 소공인의 안정적인 유통생태계 정착을 위해 단순 판로지원이 아닌 기업진단부터 교육 및 컨설팅, 국내·외 판로지원, 사

후관리 등 유통 전단계를 지원하고자 올해부터 신규 도입한 제도로 일반 지원과 집중 지원으로 나뉜다. 소진공은 지난 4월 스타 소공인이 되기 위해 지원한 소공인들 중 1차 외부전문가 평가, 2차 100인의 온라인소비자 평가, 3차 최종 공개 오디션을 통해 예비스타 소공인 10개사가 최종 선정됐다. 이번 오디션을 통해 선정된 예비스타 소공인은 뉴트리, 모니, 프레스비엘 등 10개 업체다. 소진공은 유통사 및 투자사의 기업투자를 통해 상품개선 및 개발 등 인큐베이팅 관련 지원

을 진행하며 판로확대에 필요한 마케팅 및 콘텐츠 제작, 해외박람회 참여, 국내·외 대형마트 입점 등 국내·외 판로를 연계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소공인의 성장을 위해 투자컨설팅 및 자금투자 등 유통사와 투자사, 소공인이 상호 협업해 한 단계 성장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한다. 박성호 소진공 이사장은 “선정된 예비스타 소공인은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자신만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끊임없는 노력과 열정으로 다른 소공인에게 귀감이 되고 있다”며 “이들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소공인으로서 도약할 수 있도록 공단도 적극 지원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오지현 기자

LH, 광주 선운2지구 상업·주차장용지 공급

LH 광주전남본부는 광주 선운2공공주택지구 상업시설용지 2필지와 주차장, 주유소, 자족시설용지 등 4필지를 공급한다고 7일 밝혔다. 광주선운2지구 내 상업시설용지 2필지는 8일 입찰방식으로 공급 출시하고 주차장, 주유소, 자족시설용지 등 총 4필지는 이달 중순 이후 추가로 공급할 예정이다. 상업1 블록의 면적은 4,394㎡(1,329평), 입찰기준금액은 193억원(평당 1,455만원)이며 상업2 블록은 4,607㎡(1,394평), 197억원(평당 1,415만원)이다. 대금납부조건은 3년 유이자 할부조건으로 토지사용가능시기는 2024년 7월11일 이후다.

선운2지구는 광주 광산구 선암동·운수동·소촌동 일원에 39만8,000㎡ 규모로 조성하는 공공주택지구로, 총사업비 3,033억원을 투입해 2024년 12월 준공 예정이다. 선운2지구는 선운1 지구, 광주송정역 등과 인접해 있으며 향후 KTX 역세권 개발과 공업지역 정비개발계획 등으로 광주의 신형 상권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선운2지구에는 광주·전남 첫 신혼희망타운(741가구)과 함께 총 3,033가구가 들어선다. 자세한 사항은 LH청약센터 및 LH 광주전남 판매부(☎062-360-3173, 3174)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이연수 기자

전남신보 해남지점, 군청 인근으로 이전 개점

고객 이용편의 향상 기대

전남신보보증재단은 최근 해남지점 이전식을 개최했다고 7일 밝혔다. 이전식에는 정양수 전남신보 이사장, 이재태 전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부위원장, 김석순 해남군의회의장, 김차진 부군수 등 유관기관 관계자가 참석해 해남지점의 이전과 번창을 기원했다. 지난 2013년 5월 개점한 해남지점은 해남, 완도, 진도, 기진, 장흥 지역을 관할하고 있다. 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신속 보증으로 그동안 1만

5,000여개 업체에 4,220억원의 신용보증을 공급하며,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해남지점은 기존 해남우리신협 2층에서 군청 민원실 맞은편 2층으로 이전했으며, 쾌적한 주차공간과 상담시설로 고객들의 이용편의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정양수 이사장은 이날 개소식에서 “쾌적한 환경에서 고객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해남지점을 새단장했다”며 “앞으로도 소기업·소상공인의 구원투수로서 모든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오지현 기자